

##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 지 민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은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 가족적 변인, 부모-청소년 자녀관계, 그리고 또래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개입하는데 있어 청소년을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간주하고 있다(Small, Silverberg, & Kems, 1993).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여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s)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perceived benefits and costs)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개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청소년을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을 살펴본 결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는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지각된 손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는 비행에 대한 지각된 이득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지각된 손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대한 이득은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손실은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이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지각 변인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모두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지각된 손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이득 및 손실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의 35%와 비행의 11%를 설명하며 여자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의 41%와 비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